

IV

거주 공간

PART 07

촌락과 도시

PART 08

도시 계획과 지역 개발

기술로 공략하는 사회 Compact - 한국지리

1
STEP

Basic Theory

THEME 001 문제 유형

도시와 촌락이 지금까지 어떤 특성을 가졌고, 현재 도시 내에서 어떠한 구조와 특성이 존재하는지 배우는 단원입니다. 도시 파트의 문제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 ① 전통적으로 촌락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문제.
- ② 촌락이 도시로 변화함에 따라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묻는 문제
- ③ 도시화와 도시 발달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묻는 문제
- ④ 도시체계에 따라 생긴 도시 계층을 특성에 따라 비교하는 문제
- ⑤ 도시 체계의 인구와 관련된 특성에 대해 묻는 문제
- ⑥ 도시 발달, 기능, 구조 등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
- ⑦ 도시 내부 구조의 특성에 대해서 묻는 문제
- ⑧ 도시와 주변 지역의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
- ⑩ 대도시권의 공간구조와 특성에 대해 묻는 문제
- ⑪ 중심 도시와, 위성 도시, 근교 농촌 등의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
- ⑫ 도시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 묻는 문제

- 전통적으로 촌락이 어느 조건을 반영하여 입지를 해왔는지 인지하고 있는가?
 - 예 북서풍을 차단할 수 있고 용수확보가 용이한 배산임수 형태의 산지의 남완사면에 주로 취락이 입지해왔다.
- 집촌과 산촌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가?
 - 예 집촌은 산촌보다 가옥의 밀집도가 높아 협동 노동이 수월하다.
- 촌락이 도시로 변하면서 일어난 변화를 인지하고 있는가?
 - 예 촌락은 도시화가 되면서 전업농가가 줄어들고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상승했다.
- 우리나라의 도시 분포의 특성을 인지하고 있는가?
 - 예 우리나라는 인구 1위 도시의 인구가 2위 도시의 2배 이상인 중주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도시 체계에 따른 도시 계층 간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가?
 - 예 고차 중심지는 저차 중심지보다 도시 수는 적고 도시간의 거리가 멀다.
- 도시계층과 인구 규모에 따른 도시들 간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가?
 - 예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도시군이 인구별 도시군을 나누었을 때 가장 수가 적다.
- 정주 공간 체계에 따른 도시와 촌락들의 상호 작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가?
 - 예 도시는 촌락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도시 체계 내의 각 계층 별 도시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 예 위성 도시는 도심의 다양한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서 형성되었다.
- 도시 내부 구조에 따라서 어떠한 역할과 특성이 존재하는지 인지하고 있는가?
 - 예 부도심은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여 과밀화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며 교통 결절 지역에 위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도심과 주변지역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가?
 - 예 도심은 주변 지역에 비해 주간 인구 지수가 높고 주요 상업시설과 기업들은 많지만 학교나 아파트 수는 더 적다.

도시 내의 구들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를 알고 있는가?

예 상주인구가 적지만 통근 통학 유입인구가 많은 A구는 상주인구가 많지만 통근 통학 유출 인구가 많은 B구보다 더 도심에 가까운 특성이 나타나 평균 지가가 더 높다.

도시 내부 분화 과정에 따른 결과를 인지하고 있는가?

예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대기업 본사, 호텔 등은 도심에 집중되어 분포되는 경향이 있고 지대 지불 능력이 낮은 주택이나 학교 등은 도심에서 벗어나 주변 지역에 분포되는 경향이 있다.

대도시권의 공간구조와 그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예 대도시권의 중심 도시와 교외 지역보다 배후 농촌 지역은 경지 면적 비율이 높고 인구 밀도가 낮다.

대표적인 위성 도시들의 기능과 특성을 인지하고 있는가?

예 대도시의 주거 기능을 분담하는 위성 도시인 고양은 대도시로 출근/통학을 하기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낮지만, 공업 기능을 분담하는 평택은 근처 도시의 사람들이 출근을 하기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높다.

- ✓ 전통 촌락의 취락 입지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옛날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지만 생각하면 된다. 농사를 주로 짓고 살았으니 물을 얻기 쉬운 득수가 편한 지역에서 모여 살았을 것이고, 지금처럼 홍수가 일어나도 막아줄 방제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홍수를 피하기 쉬운 지형을 선호했을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풀면 된다.
- ✓ 집촌 산촌 문제는 여느 이분법적인 개념과 같이 한 쪽만 이해하고 암기하면 다른 쪽은 반댓값을 갖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집은 모일 집(輯)촌이고 산촌은 흩어질 산(散)촌이다. 즉, 모여사는 동네와 흩어져 사는 동네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풀면 편하다. 집이 다 흩어져서 사는데 언제 그렇게 힘들게 모여서 일을 같이 할까. 당연히 그러니 협동 노동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다.
- ✓ 도시 발달 문제는 대체적으로 도시가 발달된 과정을 그래프 추이로 나타내고, 그걸 해석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해와 암기보다는 빠른 해석에 집중한다. 특히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값들을 선지로 넣어서 시간을 뺏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못 찾겠으면 패스한다. 또한 잘못 해석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끝까지 선지 판단한다.
- ✓ 도시 계층 간 비교는 쉽게 생각해서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 vs 촌 도시들로 생각하고 푼다. 서울이 당연히 중심지 기능이 많을 것이고, 서울에 영향을 받는 배후지의 범위도 넓을 것이다. 따라서 서울만큼 큰 대도시는 거의 없으니 도시 수도 적을 것이다. 거기다가 서울같이 큰 대도시들은 도시 수가 적어 띄엄띄엄 위치해있으니 도시 간 거리도 멀 것이다. 이렇게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 vs 촌 도시로 생각을 하면 까먹더라도 비교가 가능하다.
- ✓ 도시의 인구 규모에 따라서 도시를 비교하는 문제 또한 암기보다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에 집중 되어있다. 따라서 도시 발달 문제와 같이 애매한 선지 넘기기와 끝까지 선지 판단을 하는 행동 강령을 무조건 지키는 것이 옳다.
- ✓ 또한 도시 수와 인구 비중 변화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요즘의 트렌드인데, 이런 문제는 외우기보다는 도시체계의 기본 개념+해석으로 푸는 것이 옳다. 고차 중심지일수록 도시의 수가 적으니 도시 수 비중은 작을 것이고, 인구가 많으니 인구 비중은 클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증가추이나 상대적 비교를 해석하면 된다.
- ✓ 도시 간의 인구 이동과 상호 작용을 해석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은 1.가까운 곳일수록 2.고차중심지일수록 더 상호작용을 많이 한다는 기본 일반성의 원칙 하에 푼다. 이 도시와 이 도시가 상호 작용을 많이 할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푸는 것이 옳다.
- ✓ 대도심의 구간 비교는 가장 뚜렷한 서울을 중심으로 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완전 도심 역할을 하는 종로구, 중구 vs 도심과 교외의 특성 모두 가지고 있는 강남구와 주변지역 vs 아예 주거지구의 대표적인 구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의 대표적인 종로구, 중구, 강남구, 그리고 노원구 정도는 위치를 알아놓는 게 나름 큰 힌트가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최근 금융업 종사자가 많은 영등포구나 디지

털 산업단지와 공업시설이 있는 구로구와 금천구 또한 출제되고 있다. 물론 부산과 대구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그들의 중심인 '중구'의 위치만 알아둬도 좋다.

- ✓ 수도권은 도시 간 특성 비교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수도권의 중심인 서울 근교 vs 경기도 외곽을 기본 바탕으로 각각 고차도시와 저차도시를 비교하면 된다. 다만 수도권 주위의 주요 도시들은 위치를 외워둬야 한다. 예를 들어, 평택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완전 근교라고 할 수 없는 위치지만 이천처럼 배후 농촌 특성보다는 공업적, 도심적 성격이 큰 도시기 때문이다. 이런 변수를 제외하기 위해서 파주, 성남, 용인, 수원, 고양, 평택, 안산등의 도시들은 위치를 암기하는 것이 좋다.
- ✓ 주간 인구 지수는 무조건 도심 > 배후 농촌(완전 교외) > 도심 주변이다. 왜냐면 도심 주변에는 도심에서 학교를 다니고 인구를 다니는 인구들이 많아서 도심으로 빠지면 낮에 유동 인구가 적지만, 배후농촌과 같은 완전 교외는 거기서 살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도심 주변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결과가 나타난다.
- ✓ 도시/구별 상대적 비교를 할 때는 그 변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주간 인구 지수, 평균 지가 등의 지표를 나타내는 용어의 뜻을 정확히 알아둬야 한다. 도시 인구 파트에서 나오는 용어들 중 절대 뜻을 애매하게 알거나 대충 아는 용어가 없어야 한다. 그래야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라 일반성에 따라서 '이 지표가 어떤 지역에서 높은 값을 가질까?'라는 의문을 바탕으로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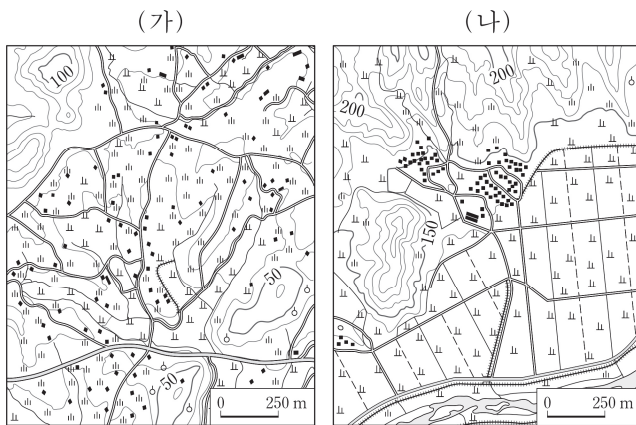
S·T·E·P

Problem Analysis

01

201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2점

지도에 나타난 (가), (나) 전통 촌락 유형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가)는 밭농사나 과수원 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 ㄴ. 혈연 중심의 동족촌은 주로 (나)에서 나타난다.
- ㄷ. (가)는 (나)보다 협업 활동이 용이하다.
- ㄹ. (나)는 (가)보다 가옥과 경지의 결합도가 높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 유형 해결

전통 촌락을 유형에 따라 구분하고 그에 대한 특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집촌vs산촌 구도로 나오는 문제는 지형도에 네모난 건물(집) 표시가 모여 있는지 흩어져 있는지를 통해 어떤 유형의 촌락인지만 확인한 후 바로 내려가서 선지 판단을 하도록 합니다.

3R

Response

- ① 발문 확인
- ② 지형도 (가), (나) 확인, 해석
- ③ 선지 진입

React

발문에서 전통 촌락 유형에 관한 지형도임을 체크.

(가) - 건물들이 흩어져 있음 = 산촌

(나) - 건물들이 모여 있음 = 집촌

ㄱ. (가) - 산촌 = 대규모의 논농사X, 가구별로 소규모 밭농사 위주. 밭농사 or 과수 재배 지역에서 나타남. 정답 In

ㄴ. 혈연 중심 동족촌 = 뭉쳐 있는 마을 = 집촌. = (나) 정답 In

ㄷ. (가) = 가구들이 분산. (나) 가구들이 밀집. 협업 활동 (나) > (가) 정답 Out

ㄹ. (가) = 가구별로 농지가 붙어 있는 형태. (나) = 농지와 마을이 떨어져 있는 형태. (가) > (나). 정답 Out

다음 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 촌락은 대체로 ㉠ 가옥이 불규칙하게 분포한다. 촌락의 형태는 ㉡에 따라 크게 집촌(集村)과 산촌(散村)으로 구분된다. 집촌은 ㉢ 벼농사 지역, 동쪽 촌락 등에서 주로 나타나고, 산촌은 ㉣ 밭농사 지역, 과수원 지역 등에서 나타난다. 집촌과 산촌은 ㉤ 가옥과 경지 간의 평균 거리, 주민의 공동체 의식 등에서 차이가 크다. 한편, 전통 촌락은 ㉥ 농촌, 어촌, 산지촌 등으로 구분된다.

- ① ㉠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 ② ㉡에는 '가옥의 밀집도'가 들어갈 수 있다.
- ③ ㉢은 ㉣보다 전통적으로 협동 작업의 필요성이 크다.
- ④ ㉤은 집촌이 산촌보다 가깝다.
- ⑤ ㉥은 촌락을 기능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 유형 해결

전통 촌락, 그리고 집촌과 산촌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바로 선지에서 내려가서 키워드별 묻는 내용들을 지문과 왔다갔다 하면서 빠르게 확인하면 됩니다.

Respon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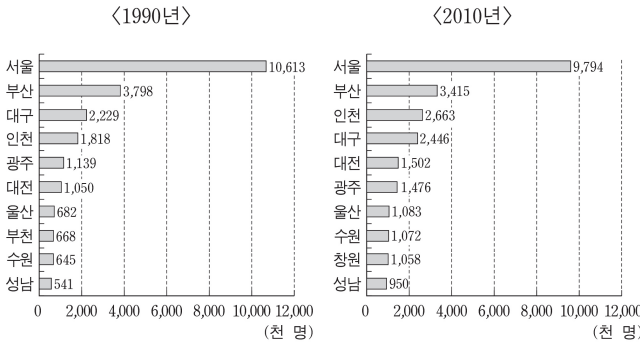
- ① 문제 유형 확인
- ② 선지 진입 후 키워드별 내용 판별

React

문제 유형이 키워드별 내용을 묻는 것임을 확인. 바로 선지 진입.

- ① ㉠ = 불규칙한 가옥 분포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 O. 원시적인 주거 형태의 특징.
- ② ㉡에 '가옥의 밀집도' 들어갈 수 있음 O. 집촌과 산촌의 구분 기준은 밀집도이므로.
- ③ ㉢ = 벼농사 지역은 ㉣ = 밭농사 지역보다 협동 작업의 필요성이 크다 O. 규모가 크고 기계화가 힘들어서.
- ④ ㉤ = 가옥과 경지 간의 평균 거리는 집촌이 산촌보다 가깝다 X. 산촌은 집 옆에 경지가 붙어 있음.
- ⑤ ㉥ = 농촌, 어촌, 산지촌은 촌락을 기능에 따라 구분한 것 O.

그래프는 두 시기의 인구 규모 상위 10대 도시를 나타낸 것이다. 1990년 대비 2010년의 변화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1990년, 2010년 인구총조사 기준임. (통계청)

< 보 기 >

ㄱ. 10대 도시 중 수도권 도시 수가 증가하였다.
 ㄴ. 대전의 인구 증가율은 광주의 인구 증가율보다 높다.
 ㄷ.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수는 2배 이상 증가하였다.
 ㄹ. 1위 도시에 대한 10위 도시의 인구 비율은 증가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유형 해결

대표적인 도시들의 인구 변화에 대한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특성 비교가 아니라 단순히 자료를 해석시키는 문제는 무조건 자료 내용에서 내용 왜곡 Out을 시키니 발문과 문제 유형만을 체크하고 바로 선지로 내려가서 각각 선지를 판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sponse

① 발문 체크
 ② 자료의 기준 체크
 ③ 선지 진입 후 판단

React

ㄱ. 10대 도시 중 수도권 도시수
 1990 - 서울, 인천, 수원, 성남, 부천
 2010 - 서울, 인천, 수원, 성남 Out

ㄴ. 대전 = 약 100만 → 150만 (약 1.5배)
 광주 110만 → 150만 (약 1.3배)
 인구 증가율: 대전 > 광주.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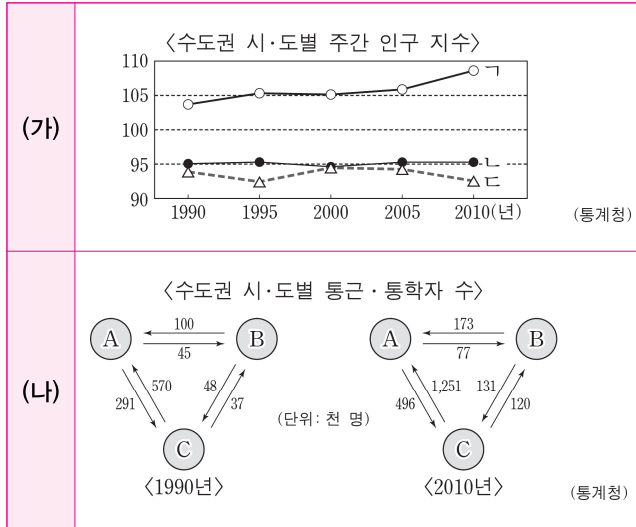
ㄷ. 기준 단위가 1천명. 100만 명은 그래프 상 1000.
 1000 이상인 도시 찾기.
 1990년 - 6개 → 2010년 - 9개 (1.5배). Out

ㄹ. 1위 도시는 인구 감소, 10위 도시는 증가. 따라서 1위 도시에 대한 10위 도시의 인구 비율(10위 도시 인구/1위 도시 인구)은 증가.

Refine

항상 계산은 작은 단위로 후려쳐서 빠르게 하면 된다. 또한, A에 대한 B의 비율은 분모와 분자의 증감이 반대 값이면 증감만 확인해서 판단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1990년에 대전이 광주보다 인구가 적었지만 2010년에 순위를 추월한 것만으로도 증가율이 몇 %든 간에 대전의 증가율이 광주의 증가율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래 낮았던 대전이 증가율까지 낮으면 추월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의 ㄱ~ㄷ에 해당하는 지역을 (나)의 A~C에서 고른 것은?



- (가) (나) (다)
- A B C
 - A C B
 - B A C
 - C A B
 - C B A

Response

- 자료 이름 각각 체크
- (가), (나) 자료 해석
- 매칭

React

(가), (나) 자료 둘 다 수도권 시도별 자료. 서울, 경기, 인천 중 하나임을 전제.

(가) - 주간 인구 지수

당연히 인구의 유입이 많은 중심지 서울이 가장 높을 것. 인천과 경기는 비슷하겠지만 경기는 더 직접적으로 서울의 위성 도시들이 있어서 인구 유출이 심하기 때문에 경기가 주간 인구지수가 낮을 것. 따라서 서울 > 인천 > 경기. ㄱ = 서울, ㄴ = 인천, ㄷ = 경기.

(나) - 통근·통학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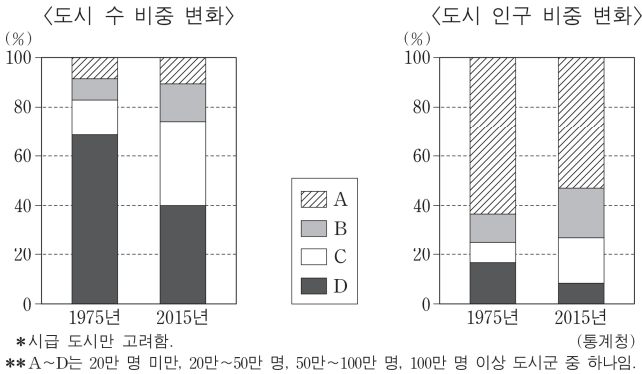
인문 지리 자료가 시대별로 나왔으면 무조건 최신 자료 먼저. 통근·통학자 이동은 주간 인구 지수와 특성이 매우 비슷. 회사와 대학교가 많은 서울이 가장 통근 통학 유입인구가 많을 것. 따라서 유입 인원이 많은 A = 서울. 유출은 위성 도시들이 있는 경기가 가장 많을 것. 따라서 1,251이 나간 경기가 C, 나머지 인천이 B일 것. A = 서울, B = 인천, C = 경기.

ㄱ = A, ㄴ = B, ㄷ = C

유형 해결

지역의 특성을 토대로 추론하는 도시 추론 문제입니다. 각 지역의 특성을 알지 못한다면 풀기 쉽지 않지만 지역성과 일반성을 토대로 추론을 해서 풀어나가면 됩니다. 지역 별 특성의 결과 값을 외울 수 있다면 외우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추론을 해서 푸는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항상 인문지리 추론 문제는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힌트 들은 다 꼼꼼히 체크를 하면서 풀어야 합니다.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별 도시 수와 도시 인구 비중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A는 100만 명 이상, D는 20만 명 미만 도시군에 해당한다.
 ㄴ. 100만 명 이상 도시군의 도시 인구 비중은 감소하였다.
 ㄷ. 20만 명 미만 도시군의 도시 수 비중은 증가하였다.
 ㄹ. 도시 인구 비중의 증가 폭은 C 도시군이 가장 크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유형 해결

도시와 관련된 지표를 주고, 해석을 하는 기본적인 자료해석 유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료를 보고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되는 유형이지만 도시 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도시 체계에 대해 공부를 해놓은 학생이라면 쉽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비슷한 자료가 나왔을 때 자료의 기준이 뭔지 동그라미로 체크를 해둬서 헛갈리지 않도록 합시다.

Response

- ① 발문, 자료 이름 체크
- ② 주석 체크
- ③ 자료 해석
- ④ 선지 진입 후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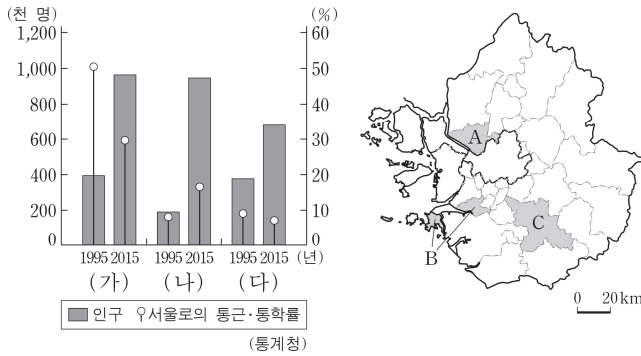
React

발문에서 인구 규모별 도시 자료임을 체크. 자료 이름 체크.
 주석에서 A~D는 20만 미만, 20~50만, 50~100만, 100만 이상 도시 중 하나임을 전제.
 도시체계에 의하면 도시 규모가 클수록 도시 수는 적어진다. 따라서 도시 수 비중 변화를 체크.
 항상 최신 자료 먼저. 2015 기준 수가 적은 순서대로 A~D가 나열. 그렇다면 도시 규모도 A~D 순.
 ∴ A = 100만 이상, B = 50~100만, C = 20~50만, D = 20만 미만.
 ㄱ. A = 100만 이상, D = 20만 미만 O. 정답 In
 ㄴ. 100만 이상 도시군의 도시 '인구' 비중은 막대 그래프 기준 1975 → 2015로 감소. 정답 In
 ㄷ. 20만명 미만 도시군(D)의 도시 '수' 비중은 막대 그래프 기준 1975 → 2015로 감소 내용 왜곡 Out
 ㄹ. 도시 '인구' 비중의 증가 폭은 막대 그래프 기준 1975 → 2015로 2배 이상 증가한 C. 정답 In

Refine

엄청난 빈출 유형이기 때문에 도시체계 순서를 외워놓았다면 2015년 도시 수로 바로 들어가서 대입을 하고 바로 선지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은?



- (가) (나) (다)
- ① A B C
 - ② A C B
 - ③ B A C
 - ④ B C A
 - ⑤ C A B

✓ 유형 해결

수도권의 도시와 관련된 특성 문제입니다. 인구가 지표로 나왔기 때문에 지역 파트에 들어갈 만한 문제이지만, 기본적인 수도권 지역의 위치를 공부한 학생이라면 도시적 특성을 고려해서 추론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항상 추론은 일반적인 상황과 지역성의 결합으로 푸는 것입니다.

Response

- ① 주어진 지도 자료에서 도시 체크
- ② 왼쪽 자료에서 주어진 지표 체크
- ③ 자료 해석과 매칭

React

지도에서 주어진 도시는 A = 고양, B = 안산, C = 용인.

자료에서 주어진 지표의 기준은 인구와 서울로의 통근 통학률.

먼저 서울로의 통근 통학률을 생각해 보면, 항상 상호작용은 가까운 도시가 더 많이 하게 되니까 서울과 붙어있는 고양이가 가장 높다. 따라서 2015 기준 가장 서울로의 통근 통학률이 높은 (가) = A(고양).

나머지는 안산과 용인인데 둘 다 고양보다는 서울과 떨어져 있어서 거리로 추론은 불가.

그러나 용인은 서울의 대표적인 위성 도시이고 안산은 공업 도시 이므로 서울로의 통근 통학률은 용인이 안산보다는 높을 것.

∴ (나) = C(용인), (다) = B(안산)

Refine

지역적 특성, 인구, 대표적인 서울의 위성도시. 셋 중 하나를 모르면 틀릴 가능성이 높은 문제이나, 일반적으로 힌트가 적은 상황에서의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 파트에서 분석해볼만한 문제. 다만 인구파트나 지역 파트를 공부한 학생들은 인구 수로 한 번에 풀 수 있고 서울과의 상호작용량으로도 한 번에 풀 수 있는 문제.

다음 글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는 사람, 자본, 물자의 흐름을 통해 ㉠ 상호 작용하여 ㉡ 계층화된 도시 체계를 형성한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서울과 전통 도시들이 각 지방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국토 계획 등의 영향으로 도시수와 규모가 변화하였는데, 특히 수도권과 남동 임해 지역의 도시 성장이 두드러졌다.

1990년대 이후에는 서울의 과밀화로 인해 ㉢ 위성 도시들이 급속히 성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여전히 ㉣ 중주 도시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광역 교통의 발달로 교외화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쾌적한 환경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 대도시권이 확대되고 있다.

- ① ㉠ - 도시의 인구 규모가 클수록 도시 간 상호 작용이 활발하다.
- ② ㉡ - 상위 계층의 도시는 하위 계층의 도시보다 도시의 기능은 다양하고 도시의 수는 적다.
- ③ ㉢ - 도시 내부의 주요 교통 결절점에서 도심의 상업 및 업무 기능을 분담·수용하여 형성된다.
- ④ ㉣ - 인구 규모가 2위인 도시의 인구 규모보다 두 배 이상 큰 수위 도시이다.
- ⑤ ㉤ - 공간적 범위는 중심 도시로의 통근이 가능한 배후 농촌 지역을 포함한다.

✓ 유형 해결

도시와 관련된 내용을 키워드를 통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정확히 용어의 개념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정답을 가릅니다. 특히 인문지리 파트에서는 대놓고 용어의 뜻을 묻거나 용어와 관련된 특성 자체를 문제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기출과 본인이 공부하는 교재에 언급되어 있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뜻을 정확하게 공부해놓으시기 바랍니다.

Response

- ① 지문의 밑줄 친 키워드 확인
- ② 선지 진입 후 판단

React

- ① ㉠ = 상호작용. 도시 간 상호작용은 도시 크기가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 정선지 In
- ② ㉡ = 도시 체계. 도시체계의 특징 = 도시 규모가 클수록 기능은 다양하고 수는 적다. O. 정선지 In
- ③ ㉢ = 위성 도시. 위성 도시의 기능 = 도심의 주거 기능을 분담. 업무와 상업은 도심에서. '도시 내부'에서 상업 및 업무 기능을 한다면 위성도시가 아님. Out
- ④ ㉣ = 중주 도시. 중주 도시의 정의 = 1위 도시의 인구 > 2위 도시의 인구의 2배. 정선지 In
- ⑤ ㉤ = 대도시권. 대도시권의 범위 = 중심 도시, 교외 지역, 영향권 내 도시, 배후 농촌 지역. 정선지 In

Refine


- ③번 선지가 설명하는 것은 부도심이다. 도시 내의 다른 교통 결절점에서 도심의 상업 및 업무 기능을 분담하는 곳이다. 서울의 여의도나 잠실 등의 지역을 생각하자.

다음은 도시 단원에 대한 한국 지리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옳지 않은 학생을 고른 것은?

〈도시 내부 구조〉


- 도시 내 기능 지역 분화
도시 내부에서는 유사한 종류의 기능이 집적하거나 분산하는 과정을 통해 ㉠ 기능 지역 분화가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도시 내부는 기능별 ㉡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에 따라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주거 지역 등으로 분화된다.
- 도심의 특성
 - ㉢ 중심 업무 기능의 집중
 - 주거 및 공업 기능의 ㉣ 이심 현상
 - ㉤ 인구 공동화 현상

밀줄 친 ㉠~㉤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갑

㉠은 접근성과 지대의 차이에 따라 발생해요.




을

㉡은 도심에서 주거 기능이 상업 기능보다 대체로 높아요.




병

㉢으로는 대기업 본사나 금융 기관의 본점 등이 있어요.



정

㉣은 도심에서 주변 지역으로 기능이 이전하는 현상이에요.



무

㉤은 도심의 상주 인구가 감소하고 주간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에요.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 유형 해결

도시 구조와 관련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항상 인문 지리 파트에서 나오는 용어들은 정확한 개념까지 숙지 해놓도록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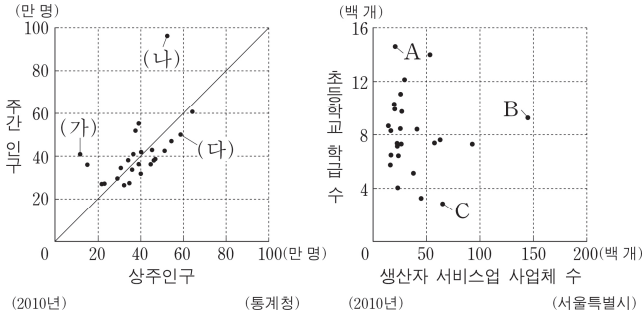
Response

- ① 발문에서 '옳지 않은' 체크
- ② 자료 키워드 확인
- ③ 선지 진입 후 판단

React

갑 - ㉠ 기능 지역 분화. 접근성과 지대의 차이에 의해 발생
 0. 기능이 많지만 땅값은 비싼 서울을 떠나 서 사는 곳은 기능 적지만 땅 값 싼 교외를 생각. 정선지 In
 을 - ㉡ 지대 지불 능력 = 지대 가격과 비례. 땅 값 비싼 중심지 > 땅 값 싼 주거지. 정선지 Out
 병 - ㉢ 도심의 중심 업무 기능 = 기업의 본사 등이 있어 업무 지역으로써 기능 하는 것. 정선지 In
 정 - ㉣ 이심 현상 = 도시의 중심 기능이 도시의 중심에서 떠나 주변으로 떠나는 현상. 정선지 In
 무 - ㉤ 인구 공동화 현상 = 도심의 상주인구가 감소해 도심 지역이 비는 현상. 정선지 In

그래프는 서울시의 구(區)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A~C에서 고른 것은?



- (가) (나) (다)
- ① A B C
 - ② A C B
 - ③ B C A
 - ④ C A B
 - ⑤ C B A

Response

- ① 발문 체크
- ② 왼쪽 자료 체크, 해석
- ③ 오른쪽 자료 체크 해석
- ③ 매칭

React

발문에서 서울시의 구별 특성을 나타낸 자료임을 확인
 왼쪽 자료 - $y = x$ 그래프를 기준으로 위쪽이면 주간인구지
 수 > 100임을 확인

(가) = 주간 인구 매우 많고 상주인구가 훨씬 적음. 주간인구
 지수 100 이상 = 도심
 (나) = 주간 인구 매우 많은데 상주인구도 꽤 많음. 주간인구
 지수 100 이상 = 강남
 (다) = 주간 인구 지수가 100 이하 = 교외.

오른쪽 자료 - 교외 특성인 초등학교 학급수와 도심 특성인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임을 체크.
 A = 초등학교 학급 수 ↑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 ↓ = 교외
 B = 초등학교 학급 수 ↑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 ↑ = 강남
 C = 초등학교 학급 수 ↓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 ↑ = 도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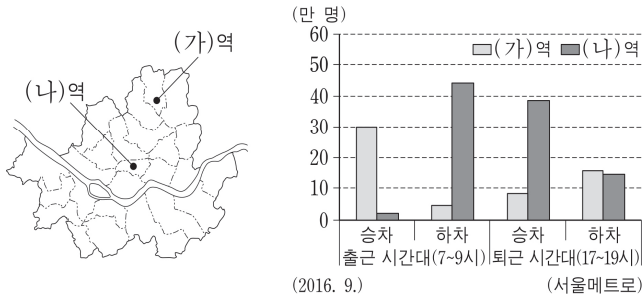
∴ (가) = C, (나) = B, (다) = A

✓ 유형 해결

서울 시내의 구별 특성과 관련된 자료를 주고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항상 대도시 내에서 구별 특성을 묻는 문제는 도심vs교외 or 도심vs교외vs강남(과 같은 주거+업무 지역)으로 분다. 서울 지도를 준다면 더 확실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삼분법으로 세팅을 해놓고 푸는 것이 옳다. 우리가 무슨 구인지 찾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상대적인 특성비교가 목표이니 강남이 아니더라도 강남이라고 후려쳐서 풀도록 하자.

지도에 표시된 (가), (나)역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주변 지역은 역을 포함하고 있는 동(洞)임.)

<출·퇴근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 수>



<보 기>

- ㉠. (가)역의 승차 인원은 퇴근 시간대보다 출근 시간대에 많다.
- ㉡. 승·하차 인원의 합은 (가)역이 (나)역보다 많다.
- ㉢. 초등학교 학생 수는 (나)역 주변 지역보다 (가)역 주변 지역에 많을 것이다.
- ㉣. 생산자 서비스업체 수는 (나)역 주변 지역보다 (가)역 주변 지역에 많을 것이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 유형 해결

대도시 내의 도심과 교외를 나누고 그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평가원의 성선설이 드러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료 둘 중 하나만 주어도 문제 해결이 가능한데 두 개까지 준다는 것은 하나가 해석이 안 되더라도 나머지 하나를 고려하면서 풀면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지역을 잘 모르는 학생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이 서울, 부산, 대구 대도시권을 형성하는 대도시들은 도심의 역할을 하는 '중구'가 항상 지리상 중앙부 근처에 위치해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도심과 교외 비교를 하면 좋습니다. 또한 이렇게 지역을 주는 자료와 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주는 자료가 나온다면 지역을 체크 하고 바로 내려가서 선지에서 통계가 필요할 때 올라오는 것도 좋습니다.

Response

- ① 지도 자료 보고 지역 체크
- ② 오른쪽 자료 체크
- ③ 선지 진입 후 판단

React

지도 자료를 보니 위치 상 (나) = 도심 (가) = 교외. 오른쪽 자료는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 수 자료.

- ㉠. 오른쪽 자료에서 (가)의 승차 출근 막대가 승차 퇴근 막대보다 더 큼. 정답 In
- ㉡. 승하차 인원의 합이니 전체 막대의 합. (나) > (가). 내용 왜곡 Out
- ㉢. 초등학교 학생 수는 교외 > 도심. 따라서 (가) > (나). 정답 In
- ㉣. 생산자 서비스업체 수는 도심 > 교외. 따라서 (나) > (가). 개념 왜곡 Out

Refine

사실 풀이 센스가 있다면 정말 5초컷이 가능한 문제이다. (가), (나)를 도심 교외만 구분하고 내려가서 통계 확인을 요구하는 선지는 당연히 교외 지역은 출근할 때 회사가려고 승차 하는 인원이 많을 것이고 ㉡. 선지도 도심지역은 다른 구 사람들도 워낙 많이 타고 내리기 때문에 안 봐도 총량이 많을 것. 그 이후 선지는 특성 선지이니 그냥 해결 가능하다.